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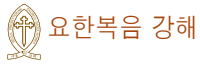
§ 2021년 표어 §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스 10:1, 12, 행 3:19-21)

十 행동 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회!
- 3.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

발행인 : 손달의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예수와 같은 이 없도다

(요 7:42-52)

이종윤 원로목사



바리새인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악심을 품고 군병들을 동원하여 예수를 체포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예수 잡는 일은 무위로 끝나 버렸습니다. 그때에 산헤드린의 일원인 니고데모가 그들과 더불어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 한 것은 틀림없지만 열심을 가지고 변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진리의 편에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 빈 손으로 온 군병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요 7:45)

예수를 잡으러 갔던 하속들이 예수를 잡지 못한 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당국자들이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서 강제로 체포하는 일은 삼가라고 했기 때문에 좀처럼 예수를 체포할 기회가 오지 않자 그들은 예수 잡는 일에 실패하고 산헤드린으로 가서 이 같은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인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은연중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당국자들은 “너희도 미혹이 되었느냐”고 반문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언제 주님 앞에 나올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뿌린 씨앗에서 반드시 싹이 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지만 싹은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므로 우리는 싹이 날까 안 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 잡으러 갔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이미 그리스도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는 자가 되었습니다.

2. 니고데모의 변론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요 7:50-51)

니고데모는 전에 예수님을 찾아와 중생에 대한 교리를 물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의 변론에 바리새인들은 대답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52절)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야 할 산헤드린의 당국자들이 격식도 율법도 다 무시해 버리고 예수 잡는 목적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을 잘 알고 율법을 그렇게 통달한다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느냐 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더

욱더 큰 실수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당신의 뜻이 계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누구라도 선지자로 세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지방색을 논하고 있습니다.

3. 본문이 주는 교훈

(1) 예수님은 독특하시고 유일하신 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는 매우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세상에 오신 방법이 독특합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를 통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믿어야만 구원이 옵니다. 그가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분이요 순종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요 7:28-29). 예수님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2) 예수님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을 하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을 하신 분이십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십니다(요 7:6).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 7:16-17).

우리가 이 말씀을 참으로 중요하게 듣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대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요 7:37). 예수님 앞에는 목마른 자가 아니면 올 필요가 없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됩니다. 인간의 불확실한 것들, 근심, 절망, 자살할 만한 일, 불합리한 것, 모든 잘못된 행동, 모든 것들의 대답은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일 뿐 예수님께는 문제가 안 됩니다.

(4)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
질병과 굶주림과 다름, 이런 모든 불의한 것들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이 인간 밖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죄악된 것 때문에 아직도 내가 불의하고 불충하고 불순종하고 온전한 데에 이르지 못하는 데서 모든 문제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오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문제의 근본 문제가 풀려지지 않습니다.



이원석 집사
(2021 사명자대회
진행본부장)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지난 10월 10일 (주일)부터 시작한 2021 사명자대회도 11월 28일(주일) 성공적인 마무리를 향해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사명자대

회를 준비할 때는 코로나 팬데믹이 더 심해지고 있어 교회 예배도 비대면으로만 할 수 있어 많은 고민 속에서 시작하였지만 이제는 워드 코로나로 국가정책이 바뀌어 어느 정도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만나 사명자대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교회여, 일어나 함께 가자!”란 주제로 하고 있는 올해 사명자대회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예년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은 지난 30년간 서울교회가 어

려운 창립 시기를 거쳐 한동안의 성장기 동안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다르다라는 교만 속에 있다가 지난 몇 년간 하나님의 시험에 회심하여 다시 일어나는 첫해입니다. 손달의 목사님을 새로운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우리 서울교회는 일어나서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 우리 서울교회 교인들 전부가 서울교회가 처음 창립할 때의 목표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저는 제가 처음 서울교회에 출석했을 때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노력했던 김치 세미나 기념판을 봤을 때의 충격을 기억합니다. 아! 서울교회는 내가 다녔었던 교회들과는 다르구나! 하고 좋은 감정을 가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가 가졌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 “세계복음화”, “교회의 천국화”, “문화의 기독교화”, 이 6가지 다짐만 다시 기억해도 우리 교인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은 교회 분쟁 속에서 자신감을 잃었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젊은 세대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살아갈 세월 동안 신앙의 목표가 되어줄 어른들의 모습을 보지 못해 갈팡지팡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목사님과 당회를 중심으로 우리 서울교회가 지향했던 목표를 향해 일어나 함께 갑시다. 2021 사명자대회도 이제 절반을 지나갑니다. 11월 22일(월)부터 27(토)일까지 특별새벽기도회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2021년은 우리 서울교회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원년이고 사회적으로는 지난 2년간 우리를 위협했던 코로나바이러스도 잠잠해지는 한 해입니다. 이번 사명자대회를 마치면 2022년은 온 세계와 지역 주민들이 우리 서울교회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가짐도 준비합시다. 우리 서울교회의 표어를 기억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멋진 크리스찬학교로 발전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의 원로목사님, 손달의 담임목사님 그리고 선교위원회와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사랑과 섬김을 감사드리며 방글라데시에서 사랑의 안부와 기도편지 올립니다.

* 소망 호스텔

(유치원부터 컬리지까지 남자31명, 여자 15명)

1. 학교 개학

코로나 후 1년 6개월 만에 가는 학교에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이들 학교 보낸 후 잠시라도 쉴 수 있게 된 선생님들과 저도 너무 좋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심해져 학교가 문 닫는 일이 없길 기도합니다.

2. 카이로스 세미나

지난달 큰 아이들 3명이 카이로스 신학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모슬렘 가정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성경과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배웠지만 카이로스를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주로 고백하고 성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곳에서 자라는 모든 아이들이 요 3:16절을 고백하는 아이들로 자라길 기도해 주세요.

3. 떠난 아이들

마음 아픈 일은 코로나로 휴교가 길어지는

가운데 아이들 5명이 떠났습니다. 하루 벌어서 살아가야 하는 부모가 코로나로 일이 없어지면서 다카에서는 버틸 수가 없어 시골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4. 호스텔 이사

올해로 계약이 끝나는 호스텔이 원래는 주인이 같이 안 살기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 저희와 같은 집에서 사시고 계십니다. 당뇨와 초기 치매를 갖고 있으신 상황인데, 저희가 시끄럽고 도둑질하고 물 많이 쓴다고 나가라고 하시다가, 일 년 더 살라고 하시다가... 여러 복잡한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는 수도 다카에서 이곳으로 올 때 넓은 장소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곳을 놓고 오랫동안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였고, 그 응답으로 이곳으로 왔다고 감사했는데, 기독교 주인이 처음인 지금이 가장 힘든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져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더 지내길 원합니다. 이 지역에 40여 명이 지낼 장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후 있을 주인과의 대화에서 계약을 더 연장할 수 있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소리웃쁨 지역 사역 (학교, 공부방 59명)

학교가 개학하며 가정 방문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수고하시던 선생님들이 이제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만나게 되어 아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골학교에 컴퓨터가 생겼습니다. 귀한 분의 섬김으로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구제와 학교가 닫힌 상황에서 가정 방문을 하며 아이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이제 대놓고는 손가락질이나 욕을 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크리스찬 학교라는 이름에 걸맞은 멋진 학교가 되게 하시길... 아이런 선생님이 얼마 전 첫아이를 집에서 낳다가 아기는 잃고, 선생님도 출혈이 심해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고 집에 돌아와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조남예 선교사 올림



2021 사명자대회-1인 1사랑 운동

호산나대학 애견센터와
유기동물 보호소에

따뜻한 극세사 담요
보내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이른 추위는 유기동물들에게는 힘든 시간입니다. 더욱이 코로나 사태로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도 어렵고 후원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2021 사명자대회는 '1인 1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순례자는 호산나대학 애견센터와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유기동물 보호소에 유기동물들이 깔고 덮을 '따뜻한 극세사 담요 보내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집에 사용하지 않는 극세사 담요가 있는 성도들은 깨끗히 세탁하여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세사 담요 이외의 다른 담요는 안 됩니다. 특히 목화솜 이불이나 오리털 거위털 이불은 유기동물들의 질식사나 장폐색으로 목숨을 위협합니다.

간혹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교회에 두고 가시는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물건들은 교회에서도 처리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처리하는데 성도들의 헌금이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따뜻한 극세사 담요 보내기'가 이러한 모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21 사명자대회 '1인 1사랑 운동'에 동참하고 싶으셨지만 방법을 찾고 계신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 일시 : 2021. 10. 31(주)
- 시간 : 오전 10시- 오후 4시
(이외의 시간은 받기 어렵습니다.)
- 장소 : 704호 순례자 실
- 후원 물품 : 깨끗한 극세사 담요
(다른 담요는 받지 않습니다.)
- 문의 : 유은경 집사 (010-3273-9249)



2021년 피택집사 및 피택권사 2차 교육 일정 변경

일시	교육과목	시간 및 장소	강사
10월 31일(주)	교회행정 및 회계처리 (기획위 1시간, 재정위 30분)	3부예배 후 3:10-4:40 본당 2층, 3층	당회(기획위원회)
	과제물제출		당 회
11월 14일(주)	당회고시		
추후공지	당회원 면접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10월25일	월	요 4:46-6:15		겔 28-33	
10월26일	화	요 6:16-7:31		겔 34-40	
10월27일	수	요 7:32-8:59		겔 41-48	
10월28일	목	요 9-10		단 1-5	
10월29일	금	요 11-12		단 6-12	
10월30일	토	요 13:1-15:17		호 1-14	
10월31일	주일	요 15:18-18:40		울 1-3	

내 사랑 서울교회 사진 콘테스트

순례자는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아 전교인을 대상으로 "내 사랑 서울교회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1. 대상 : 서울교회 모든 성도
 2. 기간 : 1월 10일(주)-10월 31일(주)
 3. 마감 및 심사 : 10월 31일(주)
 4. 결과 발표 : 11월 7일(주) 순례자를 통해
 5. 전시 : 11월 7일(주)-12월 26일(주)
 6. 시상 : 대상 1명
사랑상·소망상·믿음상 각 1명
장려상 (참여 인원수에 맞게 변동)
 7. 응모 내용
 - ① 서울교회의 봄, 여름, 가을, 겨울 혹은 교회 사벽 풍경, 야경 등 다양한 교회 사진
 - ② 교회 내·외 행사에 참여한 성도들의 모습 혹은 비대면 예배로 인해 인터넷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모습 등
 8. 응모 방법 :
 - ① 흑백, 컬러 모두 가능
 - ② 3000x2000 픽셀 이상의 jpg파일
 - ③ 본인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함
 - ④ 카톡으로 전송 시 사진 화질 선정을 반드시 원본이나 고화질로 전송
 - ⑤ 사진에 날짜 표기가 없어야 함
 - ⑥ 제출 시 사진 제목과 참가자 이름, 직분 표기
 9. 제출된 사진들은 교회 행사나 순례자 편집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10. 제출 : 유은경 집사 yoolulu@hanmail.net
- * 사진 촬영 후 잘 모르시는 성도분들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동 정

■ 떡 제공 : 하인선 장로 · 남태순 권사 가정
(자부의 세례를 감사하며)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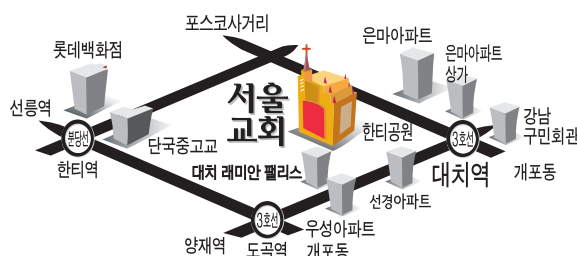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매일 정오 3분간의 느헤미야기도와 자유키도 그리고 1인 1사랑 실천을 통해 2021 사명자대회에 열심히 동참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2. 서울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15대 장로 선출이 은혜 중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3. 대한민국이 세계 복음화의 전진 기지가 되도록 복음화 된 통일 조국의 꿈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